코스피 ▼ -1.62 (2601.80) | 코스닥 ▲ +1.80 (715.55) | 원·달러 환율 ▼ -4.50 (1393.30) | 금리(국고채 3년) ▼ -0.036 (2.330)

2025년 5월21일 수요일 전남일보

# 국민이 바라는 최우선 민생경제 과제 '물가 안정'

### 한국경제인협회 설문조사 결과
### '물가' 60.9%·'일자리' 17.6% 순
### 53% "고물가·생활비 부담 증가"
### 고용불안·주거비 상승 등 어려움
### 농축산물·생필품 가격안정 필요

현재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가장 큰 경제적 어려움은 '물가'이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한 최우선 대책도 '물가 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대책'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응답이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한경협에 따르면 민생경제의 가장 큰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서 국민 과반(53.5%)은 '고물가 및 생활비 부담 증가'를 꼽았다. 다음으로는 △일자리 문제 및 고용불안(11.3%) △주거비 상승 및 전·월세 부담 증가(10.0%) △경기 둔화 및 내수 위축(7.2%) △소득 정체 및 실질임금 감소(6.8%) 등을 지적했다.

한경협은 최근 들어 소비자물가가 2% 초반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고물가 장기화로 인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수준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소비자물가지수가 개편된 2020년(지수=100)을 기준으로 4년 전후 기간을 비교해보면, 직전 4년인 2016년(95.78)에서 2020년(100)까지 물가상승률은 4.4%였으나, 2020년(100)부터 2025년 4월(116.38)까지는 16.4% 상승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민생회복 과제 역시 '물가 안정(60.9%)'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17.6%) △주거 안정(9.5%) △지역경제 활성화(7.8%) △취약계층 지원 강화(3.8%) 등 순이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물가 안정'은 56.3%(30대)~64.9%(50대)의 응답비율로 모든 연령대가 민생회복 1순위 과제로 꼽았다. 특히 50대의 응답 비율이 64.9%로 가장 높았다.

물가 안정을 제외할 경우, 20대 이하(23.0%)와 50대(19.3%)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30대에서는 '주거 안정(16.9%)'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16.9%)'의 응답 비중이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경협은 신규취업·재취업 수요가 큰 20대와 50대, 그리고 결혼 후 주택구입 시기인 30대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민생회복 1순위 과제인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할 정책에 대해서는 '농축산물·생필품 가격 안정(35.9%)'이 가장 많이 지적됐다. 이어 △공공요금(전기·가스·수도) 부담 경감(21.8%) △환율 변동성 완화·수입 물가 안정(17.2%) △세금 부담 완화·생활비 지원 강화(17.1%) △에너지·원자재 가격 안정(7.8%) 등을 꼽았다.

민생회복 2순위 과제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우선 정책과제로는 '청년·여성·고령층 맞춤형 고용 지원 강화'라는 응답(31.9%)이 가장 많았다. 이어 △첨단산업·신성장 동력 분야 일자리 창출(21.0%) △노동시장 개혁·근로환경 개선(20.6%) △중소기업·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고용 확대(20.0%)를 지적했다.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6.4%)는 응답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민생회복 3순위 과제인 '주거 안정'을 위한 우선 정책과제로는 '주택공급 확대·부동산 시장 안정'의 응답 비율(36.3%)이 가장 높았다. 이어 △전·월세 가격 안정·세입자 보호 강화(27.4%) △주거 취약계층 지원 확대(16.1%) △주택금융·세제지원 확대(13.2%) △도시 재생·주거 환경 개선(6.7%) 등으로 조사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고물가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체감물가와 직결되는 식료품·생필품 가격 안정을 위해 농산물 수입선 다변화, 유통구조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력 확충으로 가계의 소득창출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롯데百 광주점, 산지 직송 '먹갈치' 선봬**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수산 매장에서는 1마리에 3㎏이 넘는 대물 먹갈치를 선보이고 있다. 갈치는 고소하고 달콤한 맛에 살이 부드러워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국민 생선'으로 불린다. 이번에 광주점에서 선보이는 먹갈치는 목포 산지에서 직송되며 흔히 대형 갈치라고 불리는 500g 중량을 훨씬 뛰어넘는 1㎏대, 2㎏대 갈치까지 다양한 크기의 갈치를 구매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광주상의 "정부·지자체, 금호타이어 신속 지원을"

### 성명서 발표 "지역경제 심각한 우려"
### "산업 기반·일자리 지키는 공동 과제"

광주상공회의소는 20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와 관련, 정부 및 지자체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광주상의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화재로 주요 생산시설이 큰 피해를 입고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된 것은 지역 경제와 산업 생태계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주상의는 "광주공장은 2300여 명의 근로자는 물론 수많은 협력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광주 제조업의 중심축 역할을 해온 상징적인 기업"이라며 "최근 전기차용 고성능 타이어 개발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오며 올해 매출 5조원 달성을 목표로 성장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던 상황에서의 피해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광주상의는 정부에 대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이 위치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국비를 통한 긴급복구비 지원과 재해복구 절차를 신속히 시행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공장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협력업체와 근로자들이 고용 불안과 생계 위협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신속한 고용정책심의를 통해 해당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일시휴업 보상, 협력업체 지원 대책 등 고용 안정 방안을 함께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광주광역시에도 피해기업·협력업체 지방세 감면, 긴급 경영안정자금 연계, 원스톱 행정지원 창구 운영 등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다.

광주상의는 "지역 산업을 함께 일궈온 금호타이어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지역 상공인들과 함께 전폭적인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정부와 지자체도 이번 위기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실질적인 회복 지원에 나서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이어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를 빠르게 극복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금호타이어의 정상화는 단순한 기업 복구를 넘어, 광주의 산업 기반과 일자리를 지키는 공동의 과제임을 모두가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나설 때"라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 중진공 광주본부, 지역대학과 '광주드림패스' 체결

### 전남대·광주대·동강대 등 11곳
### 인재 육성…지역내 창업·정주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은 20일 광주 지역 11개 대학과 함께 '광주드림패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중진공 호남연수원에서 진행됐으며 임상규 중기부 지역혁신정책과장, 최경화 광주광역시 대학인재정책과장, 김보현 광주라이즈센터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여 대학은 광주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남부대학교, 동강대학교, 서영대학교, 송원대학교, 전남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교 광주캠퍼스, 호남대학교 등 총 11개교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 중기부와 교육부가 체결한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기반 지역주력산업 육성 협약'의 일환으로, 지역 대학과 기업,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인재를 양성하고 정착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광주드림패스'는 △지역 산업 수요 기반 교육과정 공동 기획·운영 △외국인 유학생의 중소기업 취업 지원 및 지역 정주 기반 마련 △청년창업 프로그램 공동 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중진공은 광주 RISE센터 및 RISE사업 참여 대학과 연계해 지역 청년들에게 청년창업 사관학교 프로그램, 실습 중심 기술교육, 외국인 유학생 전용 취업 플랫폼인 'K-Work 플랫폼'을 적극 연계 지원할 방침으로, 시범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타 지역으로의 확산도 계획하고 있다.

업무협약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광주 RISE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대학별 정책 건의와 지역상생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소영 기자

# 광주경총 "중기 공동브랜드제품 구매 확대해야"

### 대선 공약에 반영 요구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중소기업 공동 브랜드 제품 구매 확대 분야를 대선공약에 반영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광주경총에 따르면 광주공동브랜드 지엘(GIEL)은 45개 기업으로 가전, 전기·전자 제품 등을 지역 기업에서 생산한 공기청정기, 제빙기, 살균건조기, 가습기, 두피케어기 등 주로 생활밀착형 제품들로 구성돼 있다.

2022년 광주공동브랜드 매출액은 9310억원, 수출액은 5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지역기업의 성장을 견인했다.

최근 광주공동브랜드 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광주시가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지만 대기업 수준의 국내외 마케팅과 A/S분야에 어려움이 많아 대량 생산에 한계가 있어 정부차원에서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광주공동브랜드사업이 내년이면 10년째로 광주지역 중소기업은 대기업 못지않은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판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지역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광주시에서는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정부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건설사와 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역제품 우선 구매 등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권범 기자

# 광주시, 소상공인 대상 '노쇼 사기' 주의보

### 시청 사칭 대리결제 유도 발생

광주광역시는 20일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노쇼(No-Show) 사기' 수법과 관련해 광주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노쇼 사기' 유형은 군부대를 사칭해 단체 훈련을 명분으로 도시락을 대량 주문하고 평소 거래하던 전투식량 납품업체에 도시락 대금을 대신 결제해달라고 요청한 뒤 훈련 종료 후 현금으로 정산하겠다며 사라지는 수법이 대표적이다. 또 최근에는 선거 시기를 틈타 선거캠프 관계자를 사칭한 사례도 나타났다. 이들은 다수 인원의 숙박과 도시락을 허위로 예약하거나, 명함·어깨띠·현수막 등 선거 홍보물을 주문하고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소상공인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

최근 광주지역에서도 광주시청을 사칭한 '노쇼 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사기범은 시청 직원을 사칭해 한 식당에 특정 고급 와인을 구매해둘 것을 요청, 특정 주류업체에 송금을 유도하고 예약 당일 식당에 방문하지 않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정상아 기자